

# 광주 대형 집합건물 ‘유령 증축’...“재산권 피해” 분통

광산구 우산동 6층 규모...2017년 분양 시행사, 당시 “증축” 약속...소유자들 등의 미실행 불구 등기 변동...행정 당국 뒷짐 입점 공공기관 공용면적 무단 점유 등도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한 집합건물의 ‘유령 증축’으로 인해 입주자들에게는 6층 규모로 분양된 대지권이 10층으로 증축돼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육근 기자

광주 광산구 한 대형 집합건물의 ‘유령 증축’으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의 대지권이 크게 축소돼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게다가 행정 당국의 소극적 태도는 물론, 입점 공공기관의 공용면적 무단 점유, 장애인 탈출 출입구 폐쇄 등 불법 행위가 지속됨에도 관할 지자체가 이를 수년째 모르고 있어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우산동 소재 모 6층

상가건물은 2007년 준공됐고, 2017년 11월 A 시행사가 공매를 받아 분양에 나섰다.

당시 A 시행사는 십수명의 구분소유자들에게 “7-10층 오피스텔 275세대를 증축하겠다”며 동의서를 받았다.

하지만 약속했던 증축은 현재까지 단 한 층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2023년 내려진 증축 허가는 2년 내 공사 미진행을 사유로 올해 초 취소 처분됐다.

문제는 실제 증축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서류상 등기는 2018년 10층 증축을 전제로 변동됐다는 점이다.

때문에 계약 당시 구분소유자 1인당 대지권은 26.62㎡였으나, 서류상 대지권이 15.13㎡로 축소돼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구분소유자들의 입장이다.

대지권 등기 변동 사실은 2019년 재산세 납부 과정에서 드러났다.

구분소유자들은 이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인 광산구의 소극적 행정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축 동의 과정에서 구분소유자의 서류가 누락됐다는 주장이 나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2022년 11월께 광산구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기 때문이다.

이후 A 시행사는 같은 해 용도변경 및 대수선, 2차 증축을 위해 구분소유자들에게 추가 동의를 요구했지만, 일부가 이를 거부하자 영업 방해로 이유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분소유자의 추가 동의 거부 가 정당하며 영업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행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구분소유자들은 부당하게 변동된 등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자 2024년 11월 광주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광주시가 ‘정보공개 인용’ 결정했으나, 구는 “관련 서류가 부존재하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현재 구분소유자들은 A 시행사 측에 당초 약속대로 7-10층을 증축하거나 대지권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

구분소유자들은 “대지권 감소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처지에 놓였다”며 “업체는 하루 속히 계약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건물 1층에 입점해있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의원이 통로와 화장실 등 1천 400여㎡(약 450평)에 달하는 공용면적을 2022년부터 4년여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

이는 같은 사실이 본보의 취재로 확인되자 광산구는 최근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원상복구 시정 명령을 내렸다.

광산구 관계자는 “정보공개 부분은 자체 조사 결과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단 점유의 경우 빠른 시일 내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시정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이육근 기자

## 광주 애견숍서 개 탈출 ‘로드킬’...책임 공방

광주의 한 애견숍에서 미용을 마친 개가 매장이 열린 틈에 밖으로 나간 뒤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견주와 문을 연 손님 등이 책임과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견주 A씨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정오께 광산구 신창동 한 애견숍에 반려견의 미용을 맡긴 뒤 자리를 비웠다.

이후 오후 1시쯤께 다른 반려견을 찾으러 온 손님 B씨가 매장에 들어오면서 중문을 열었고, 동행한 C씨가 비를 맞은 우산을 털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둔 사이 A씨의 반려견이 밖으로 나갔다.

애견숍 측은 반려견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후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A씨의 친척과 지인들이 반려견을 찾기 위해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당근마켓 동네생활’ 등에 목격 제보가 이어졌다. 오후 3시쯤께 수완

견주 “매장 문 연 이틀 사고 한마디 없어”

분양가 감안·손님에 2천만원씩 요구

기부 예정...애견숍은 장례비용 등 부담

동 안동공원 인근 교회 주변에서 반려견을 봤다는 제보가, 오후 5시쯤께 수완지하차도 인근에서 반려견이 뛰어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그러다 오후 5시10분께 광산구청 당직실을 통해 수완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반려견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확인 결과 자신의 반려견이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숨진 반려견은 4살 된 ‘우유’라는 이름의 꼬봉드 트래야 종으로 분양가가 약 1천만원 안팎에 이르는 고가 반려견으로 알려져 있다.

우유가 미용실을 빠져나온 뒤 사고가 발생한

지점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5km로, 목격 제보가 이어진 이동 경로를 기준으로 하면 약 7.8km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우유가 매장 관리 소홀로 밖으로 나갔으며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후 문을 열었던 손님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애견숍과 손님 B·C씨 측에 각각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보상금을 받게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고 전액 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견숍 측은 사고 직후 반려견 장례 비용을 부담했으며 A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배상 문제도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 이후 B·C씨 측은 ‘같은 견종의 강아지를 사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으나, 과도한 배상 요구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찬용 기자



화재 ‘공기안전매트’ 전개 훈련 2026년 상반기 광주남구청 화재대피 훈련이 11일 오후 남구청 후문에서 열려 관계자들이 공기안전매트를 전개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 또 ‘구리 절도’...교량 이름표 수백개 훔친 40대 송치

작년 12월부터 850여개 때 4천여만원 쟁취

사상 최고가격을 경신한 구리를 노리고 교량 이름표를 수백개 훔쳐 판매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전남과 전북을 돌며 254개 교량에 설치된 교명판 850여개를

훔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교명판은 교량 이름과 설계 하중 등 교량의 정보가 담겨 있는데, A씨는 공구를 사용하면 쉽게 떼어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조사 결과 A씨는 CCTV가 없는 곳을 노려 훔친 교명판을 광주 한 고물상에 팔아 약 4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원상복구를 위한 시공 비용까지 고

려하면 피해액은 6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산정했다.

A씨에게서 교명판을 구매해 고물상 업체 관계자 등 6명도 장물취득 등 혐의로 송치됐다.

앞서 신안과 무안, 해남 일대에서는 전선에 포함된 구리를 노리고 6천만원 상당의 전봇대 전선(중성선)을 훔친 혐의로 50대 퇴직 배전공이 경찰에 검거됐다.

구리 가격은 올해 1월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1당 약 1만4천달러(2천360만원) 수준으로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 광주 고교 야구부 코치들 선수와 ‘음주 의혹’

해당 학교, 경찰 신고...市교육청도 확인중

광주 지역 한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들이 동계 훈련 중 학생 선수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 A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들이 해남에서 동계훈련 기간 중 숙소에서 선수들을 불러 함께 음주를 했다는 신고가 최근 학교에 접수됐다.

이에 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코치들과 야구부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면담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코치들은 선수들과의 음주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치들과 음주를 함께 했다고 알려진 일부 선수들도 학교 측 면담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음주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아 학교 측이 일단 경찰에 신고했다”며 “우선 관련 부서에서 학교에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른 학교 운동부의 선수 관리 상황도 별도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원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